

사순 제 3 주일

기도서 257 면(A해)  
 제1독서: 출애 17,3-7  
 제2독서: 로마 5,1-2.5-8  
 복음: 요한 4,5-42

# 숲 정 이

발행처: 천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 바위를 칩

(출애 17:1-7)

김정원 신부

우리는 보통 「바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음식을 먹고 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을니다」(고전 10:4).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바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바위」는 광야에 있었던 바위였다면, 그리스도는 타는 땅의 「바위」(이사 32:2)이다. 「바위」는 분명히 「피난처」, 「요새」, 「내구성」, 「능력」을 말한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6절). 분명히 물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요한 1:46). 인간의 방법과 하느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이사 55:8). 성서는 한마디로 이 「다름」을 일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호렘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6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강생」을 일러주는 내용이다.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후 5:19). 호렘의 바위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바위에 계신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다.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나타낸다면 「바위」에 계신 하느님은 그분의 신성(神性)과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하느님은 구원의 「출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통로」이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도 되시고, 그리스도도 되신다(사행 2:36).

「바위를 치라」(6절).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구원의 진리가 나온 것이다. 하느님의 도유자가 칩(打)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약행이었다. 그 물에 생명을 맛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의 몸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다」(이사 53:5).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5절). 바위는 반드시 칩(打)을 받아야 한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죽죄의 제물로 내놓았다」(이사 53:10).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놓고, 「이것은 야훼의 역사(役事)이며, 인간의 눈에는 놀라운 것」(시편 118:23)일 뿐이라고 진실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뚫어 했던 「십판의 지팡이」이고, 하느님의 권위와 능력의 표지이다.

「바위」를 칩(打)은 한번만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죽음은 한번으로 족했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그것으로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족했던 것이다. 십자가의 도(道)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렵다.  
 (베소라 성서 전단)



## 230만 도민에 7만8천 신자

작년말 현재의 한국 천주교회 신자 총수가 1백7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에 대한 신자화율은 4.3%이고 전년도에 비해 8.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톨릭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총인구에 대한 신자화율인 복음화율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육심으로는 아직 모자람이 크다.

전주교구는 전국 14개 교구 가운데 신자 숫자나 그 증가수에 있어서 8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신자 증가율은 겨우 6%로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30만여명의 전라북도 인구에 비하면 겨우 3.4%의 신자화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교구의 취약점이 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전국 증가율과 비교하면 2.4%나 뒤떨어져 있고, 도민 신자화율은 전국 신자화율에 비해 0.93%가 부족한 형편이다. 물론 도세가 약하고 타지로의 진출이 심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겠으나,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겸손하게 반성해야 한다. 200주년을 맞는 한국 최초의 방인(邦人) 자치교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시정될 성인 103위에 대한 전주교구 성인 7위는, 성인 보유율(?)에 있어서 6.79%이다. 이에 비하면 신자보유율(?)은 겨우 4.55%에 머물고 있다. 적어도 성인 보유율(?)에 상당한 신자수라면 우리 교구도 7만8천의 신자가 아니라 1백15만의 신자가 있어야 한다는 어거지를 부릴 수 있다. 그리고 전국 복음화 수준을 유지하자면 99만의 신자가 있어야 한다.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교세 통계표를 보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한다. 더욱 열심히 살고 공부하며, 더욱 더 선교에 힘쓰자.

## 숲 정 이 산책



많이 들으시다

□사순절 묵상

그리스도인의 하루 ②

하루의 일과 중에는 수없이 많은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사랑과 은총 모든 것을 받는 자들이기에 감사의 표시로써 그분께 마련해 드릴려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들에게 친절히 인사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도와준 다든지, 기분이 좋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이를 극복할 때,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공손히 용서를 청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미사 때에나 혹은 잠시 기도드리느 순간에만 마음을 들어 당신께로 향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때나 쉴 때를 막론하고 기도의 시간과 큰 차이가 없이 줄곧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곧 기도인데 여기에는 많은 말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짙막한 화상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주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하루였지만 저녁이 되면 잡다한 일들이 마음을 산란케 해 줄때도 있습니다. 하루를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로히 마치기 위해 우리는 몇분 동안의 반성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이 결핍되었던 행동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는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수신편도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므로써 더 한층 가까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작은 궁전 속에 머무시면서 '나'라는 연약한 존재를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써 돌보아 주십니다. 때로는 아무리 남이 알아주지 않고 천하게 보이는 노동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하느님 앞에 이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봉독하는 성서 속에는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속삭여 주시리라고 믿는 마음으로 읽고 깊은 신앙의 정신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게 된다면 나 자신에게 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평화와 구원이 흐르는 하루가 되게 할 것입니다.

<성글라라 수녀원 제공>

영보를 받으신 마리아께

하늘과 땅에서 가장 사랑하을 모후여,  
성부의 큰 사랑을 받는 따님이시며,  
성자의 지극히 높으신 어머니시요,  
성령의 영화로운 정배이신 마리아여,  
당신은 대천사 가브리엘을 믿으셨기에,  
그가 말씀하신 위대한 일이 모두 당신 안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모든 세대가 당신을 복되다고 합니다.

마리아여,  
내 영혼과 나의 전존재도 당신을 우러릅니다.  
동정이신 당신 태중에서 하느님 아들이 탄생하실 것을 믿으셨기에,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복된 날이었으며,  
그로부터 인류는 유일한 스승,  
영원한 대사제,  
속죄의 제물,  
은 우주의 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은혜요 모든 선의 근원이니,  
마리아여,  
우리에게도 생생하고 굳건하며,  
실천력이 있는 믿음,  
사람을 구하고 성인이 되게 하는 믿음을 얻어주소서.  
교회와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소서.  
당신이 성자의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묵상하셨듯이,  
우리도 당신 아드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소서.  
복음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고  
모두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며,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방송안내 : 이리 기독교 방송(1314KHz)

①꿈과 음악 사이(매일 밤 11시15분~12시 일요일 제외)

밤의 명상(5분)—성 패수 신부 담당

②CBS 대행진 메시지(5분)—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사이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 • ⑤ 5289

**성심연와공업사**

변색 벽돌 · 적벽돌(제조 판매)

공장전화 : 황산 174번  
본사 : 이리시 창인동  
전주사무실 : ☎ 2-0385  
이리시 창인동 1가 259  
☎ ② 2994 • ③ 7979  
대표 : 차계철(베드로)

**[SS] FASHION 전주 특약 점**

 버 킹 검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어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뉴 맨  hanging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④ 4 4 5 1  
주인 유 율리안나

첼 린 저 주 니 어 북

\*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전주교구 200주년 기념

## 사 순 절 대 강 연 회

- 때 : 31일(토) 오후 7시 30분
- 곳 : 전주 중앙성당
- 주제 : 200주년과 평신도상

(문 정현 신부님)

### □ 전주교구 200주년 개안 수술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 개안 수술에 전주교구에서는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3월 20일 현재, 대전 이 기석 안과에서 10명(13안), 광주 홍 안과에서 5명(7안)이 수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4년 말까지 계속될 개안수술 자선사업에 영세민 실명자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요청된다.

#### 개안수술 신청 절차는

백내장, 녹내장 환자로서 안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수술로써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영세민 ① 의료보호 2종 대상자(녹색카드 소지자) ②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 환자)으로 수술 신청서에 교회 성직자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안과 전문의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서와 함께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1매와 영세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읍·면·동장 발행)를 첨부하여 교구청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 □ 이후동 성당 신축 기금마련 바자회

노송동 성당 사도회에서는 이후동 성당 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4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7일부터 8일까지는 노송동 성당에서 갖는다. 모든 생필품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바자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

판매상품-① 의류 및 생필품 ② 식료품 ③ 주방기구 ④ 가구 및 장식품 ⑤ 레저용품 ⑥ 기타

### □ 사순절 운동에 다같이 참여합니다

#### 인성회 사순절운동 개요

1. 금년도 사순절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이하여 형제적 사랑과 복음적 청빈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함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사순절 기간동안 전 교회가 회개와 보속,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한 신앙체신 운동을 한다.

2. 금년도 사순절 운동의 주제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함께"이다

3.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가) 사순 제5주 금요일(4월 13일)을 회개와 보속의 단식제로 지낼 것을 권고한다.

나) 사순절 기간동안 신앙체신을 위한 각종 피정, 연수회, 모임 등을 마련한다.

다) 공동체적 나눔의 표시로서 사순 제6주 수난주일(4월 15일)에 공동체 헌금을 실시한다.

라) 사순절동안 가정용 모금상자나 저금통을 이용한다.

#### \*인성회란?

인성회란 1976년 6월 주교회의에서 발족한 기구로서 ① 긴급구조 및 자선활동, ② 복지사업, ③ 개발사업, ④ 사회의식 제발, ⑤ 사회적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교회를 사회속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발전시켜 사랑에 가득찬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프로-스펙스전북(백암)대리점

프로-스펙스 전북(백암)대리점이 교우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서중암 프로스펙스에서 오거리로 이전 하였기에 교우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왕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경 자 (안젤라)

오거리 한국무선 옆

☎ ② 3329 ③ 1443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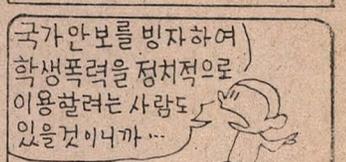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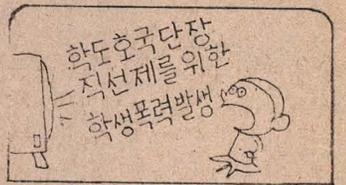
### 금 보 장

장(방저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경기 특설

## 요심이(555) 김병오



특복·유아복 아동복 전문

### 왕 자 아 동 복

아카데미백화점 B-27호

☎ ② 8037

안 경 레(마리아)

신속배달 설비시설

### 한국 가스 상사

☎ 3-1457-72-0612

김 성 두(토마스)

이 미 자(안젤라)

\*마이크 앰프시설 전문  
VTR, 냉장고, 칼라 TV, 세탁기, 녹음기, 전자렌지  
공장도 가격 판매 개시

### 금성팩토링 체인점 백운전자

백 니노·이 테레사  
☎ 3-0231

우신호텔-시민약국 중간

